

儀仗旗에 있어서의 天象의 意味 考察

白 英 子*

A Study on the Heaven-Shaped Patterns of the Ceremonial Flags

Young Ja, Baik

<目 次>	
I. 序 論	③ 儀仗旗로서의 二十八宿
II. 本 論	2. 青龍旗·白虎旗·朱雀旗·玄武旗(四神)
1. 二十八宿旗	3. 日旗·月旗
① 自然科學的인 對象으로서의 二十 八宿	4. 北斗七星旗
② 政治的인 對象으로서의 二十八宿	5. 五星旗
	III. 結 論

Abstract

Various ceremonial flags were of great importance to the rulers who wished to have the absolute authorities for governing the people. Perhaps nothing indicated the ideas, thoughts and symbols of a certain period and people than the ceremonial flags. The ceremonial flags used in the old China and Korea took the shapes of the heaven and the earth, representing the social backgrounds and thoughts. This study was limited only to the discussion of the heaven-shaped patterns of the ceremonial flags.

The 28 constellations of the heaven, in the Oriental way of thinking, were considered to express the immortal powers of Providence and the political domination of the earth. Hence the Polaris, the center of the heaven, symbolized the whole family of king, prince, child born of a concubine and royal harem. Among the constellation pictures were those of Han period, wall painting of old tombs in Koguryeo kingdom and old Japanese kingdom.

Referring to the Emperor's ceremonial flags in Daemyeongjibyeyi, symbolic meanings changed historically and the complete systems of the ceremonial flags were established in Song period when the divine person was drawn on the flags. Animals concerned properly with the particular star and the shapes of the star were both drawn on the flags in Won period and only the shapes of the particular star in Myeong period. In the Imperial enthronement of Kojong the ceremonial flags might be made by the examples of those of Myeong period and remains are now found at Changdeok Palace, which need a further study because the references in detail are not available.

* 德成女子大學 衣裳學科 助教授

I. 序 論

권력자의 절대적인 통치 지배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儀式이 행하여질 때, 여기에 동원될 수 있는 최대한의 화려하고 장엄한 儀仗物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儀仗物 중에서도 旗幟는 儀仗의 핵심을 이루어 사용되며, 이는 사회적 배경과 思想에 바탕을 둔 象徴性이 종합적으로 투영된 집약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思想性 내지는 象徴性을 전제로 하여 自然의 우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체적인 旗幟의 意味를 天象과 地象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地象을 意味하는 旗幟紋樣으로서는 虎와 같이 용맹스럽고 실체적인 動物과, 吉祥思想과 무한한 造化能力을 갖는 상서롭고 절대적인 상상의 動物, 吉鳥 등 외에도 地上의 全國土를 뜻하는 山嶽, 江 등으로 표시된다. 天象을 의미하는 旗幟紋樣을 日, 月, 星辰, 즉 二十八宿, 四神(靑龍, 白虎, 朱雀, 玄武), 北斗七星, 五星, 風雲, 雷雨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특히 地象 표지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天象 표지물에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自然科學的인 要素보다는 政治的인 象徴性이 많이 부여되어 權力者에게 절대적인 意味를 갖게 하며 地上의 政治支配의 組織, 그것이 天에 反映되고 또 地上에 反映되는, 天과 人의 相關關係를 이루어 주는 思考가 지배하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전체를 다루기에는 內容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天象의 意味만을 발췌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研究方法에 있어서는 朝鮮王朝의 儀仗旗보다는 高宗皇帝의 즉위 후에 썼으리라고 보이는 昌德宮의 遺物 중에서 天象을 意味한다고 생각되는 旗幟를 선택하였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문헌으로서는 高宗황제 大禮時에 참조했으리라고 보는 中國 明代의 「大明集禮」에 의거하였다. 이들을 기준으로 天의 根本思想을 캐고, 시대 변천에 따른 내면적인 사고와 상징성을 考察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二十八宿旗

天文, 즉 天象은 2가지 측면에서 다룰 수가 있는데 一面은 自然科學의 대상이 되는 天文(天象)이고, 다른 면은 지극히 강한 政治的인 意味를 내포하는 天文(天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유럽의 天文學과 東洋의 天文學이 크게 다른 점으로 東洋人, 특히 中國人 古來의 思考方式의 天文은 궁극적으로 政治的인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즉 地上의 政治支配의 組織 그것이 天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天과 人이 相關을 맺어 영원불멸의 절대적인 권력과 통치를 누리하고자 함이니, 의장기에 있어서의 天象을 意味하는 紋樣은 바로 “治天下”를 상징하는 것이 된다.

① 自然科學的인 對象으로서의 二十八宿

星宿, 曆을 만드는데 關係가 깊었던 二十八宿은 中國 夏時代의 北斗觀測法에 이어서 周初 경 이미 太陽曆의 季節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創案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의 形에 있어서는 大角, 織女, 牽牛 등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實用의 편의상 春秋時代에서 戰國時代에 걸쳐서 整理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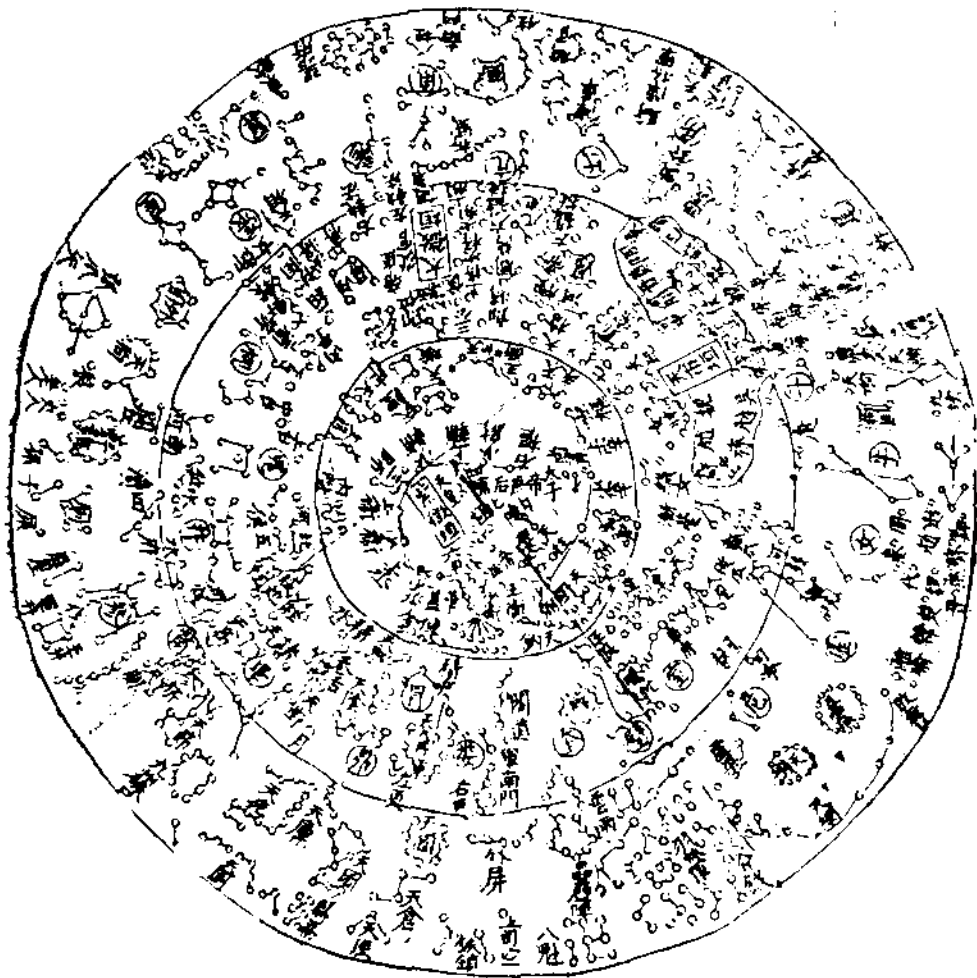
月이 恒星에 대해서 黃道를 일주하는 것은 27일이기 때문에 月의 恒星間에 있어서의 位置變化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현저한 星象을 목표로 하여 黃道 方面의 一周天(行星의 軌道를 한 바퀴 도는 것) 二十八의 不等한 部分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二十八의 月의 宿이라고 불렀던 것이 二十八宿法이다.

결국 二十八宿이란 日, 月, 五星(水·金·火·木·土)의 天球上에 있어서의 운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黃道 및 赤道 부근의 周天에, 그 標準으로서 세워진 비교적 현저한 二十八의 星宿이고 각 星宿의 標準星間의 相距度數는 不等이다(圖 1).⁽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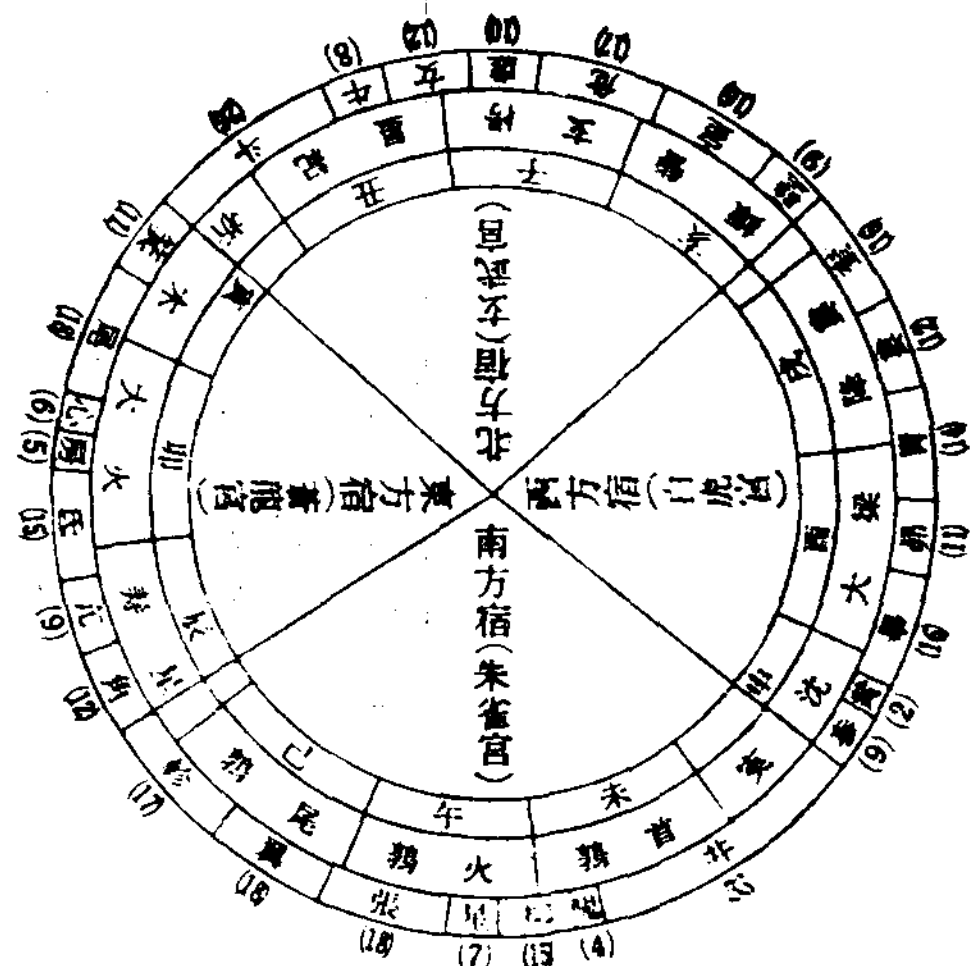
또한 中國에 있어서는 二十八宿에 關係해서 天의 部位를 나타내기 위하여,

四獸; 靑龍·朱雀·白虎·玄武

(1) 王折, 三才圖會(一), p.20.



〔圖〕1 天文總圖



〔圖〕2 周天區分の相互關係圖

西陸；東陸·南陸·西陸·北陸
 十二辰；子·丑·寅·卯·辰·巳·午·未·申
 西·戌·亥
 十二次；壽星·大火·析木·星紀·玄枵·娵訾
 降婁·大梁·實沈·鶉首·鶉火·箕尾
 와 같이 나누고,
 二十八宿는
 東宮靑龍；角·亢·氐·房·心·尾·箕
 北宮玄武；斗·牛·女·虛·危·室·壁
 西宮白虎；奎·婁·胃·昂·畢·觜·參
 南宮朱鳥(雀)；井·鬼·柳·星·張·翼·軫으
 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대부분은 「禮記」의 月令 중에서 볼 수 있으며 「尙書」, 堯典, 「爾雅」釋天, 「左傳」, 「國語」, 「史記」의 律書 및 天宮書 등에 部分的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漢書」律歷志에 이르러서는 周天의 十二次, 二十四節氣, 二十八宿의 關係를 明示하여 曆의 成立의 大강을 나타내 주고 있다 [圖 2].

여기에는 二十八宿의 相距度數, 혹은 各宿의 標準星間의 赤道廣度數를 나타내 주고, 이러한 것에 의해서 周天 區分의 相互關係는 거의 완전한 상태로 알 수 있다. 말할 나위도 없이 그 圖 中心은 紫微垣 가운데의 天의 北極이 存在하고 있는 것이라고 理解해도 될 것이다.

이와같이 中國에서는 月의 차고 기울음(二十九

日이나 三十日)을 가지고 헤아릴 뿐 아니라 太陽이 十二次의 初에 있으면 節이고, 한가운데 있으면 月中이라고 하여 태양의 소재는 月節이나 月中에 해당하는 二十八宿 名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二十八宿와 二十四節氣는 關係가 분명하고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閏月에 있어서의 曆의 一年, 즉 一曆年의 平均 길이를 眞의 一太陽年 오는 一回歸年의 眞의 길이에 접근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했다고 이해된다.

이것이 소위 太陰太陽曆이라고 하는 것으로 曆을 만드는 위와 같은 役割을 가진 것이 二十八宿이다.

다음 春秋 秦漢 이후 보다 唐의 開元年間에 이르기까지의 二十八宿의 距星의 西洋名과 韓國名을 들어보면 뒤의 표와 같다. (2)

② 政治的인 對象으로서의 二十八宿

天文이 自然科學의 對象이 되는 유럽과는 달리 東洋의 天文은 지극히 강한 政治的인 意味를 갖기 때문에 星宿는 天帝가 大宇宙를 支配하고 있는 뜻을 表現해 주고 있다.

한 예로서 옛부터 帝王의 居所가 되고 있다. 紫微垣 가운데 北極五星과 北極 주위의 四輔를 들 수 있다. 이 北極五星은 天의 中心으로 太子·帝·庶子·後宮을 나타내는 바 이 北極五星의 北極에서 4번째의 별이 밝은데 이것이 天帝를 뜻하는 「帝星」이다. 5번째 左端이 皇太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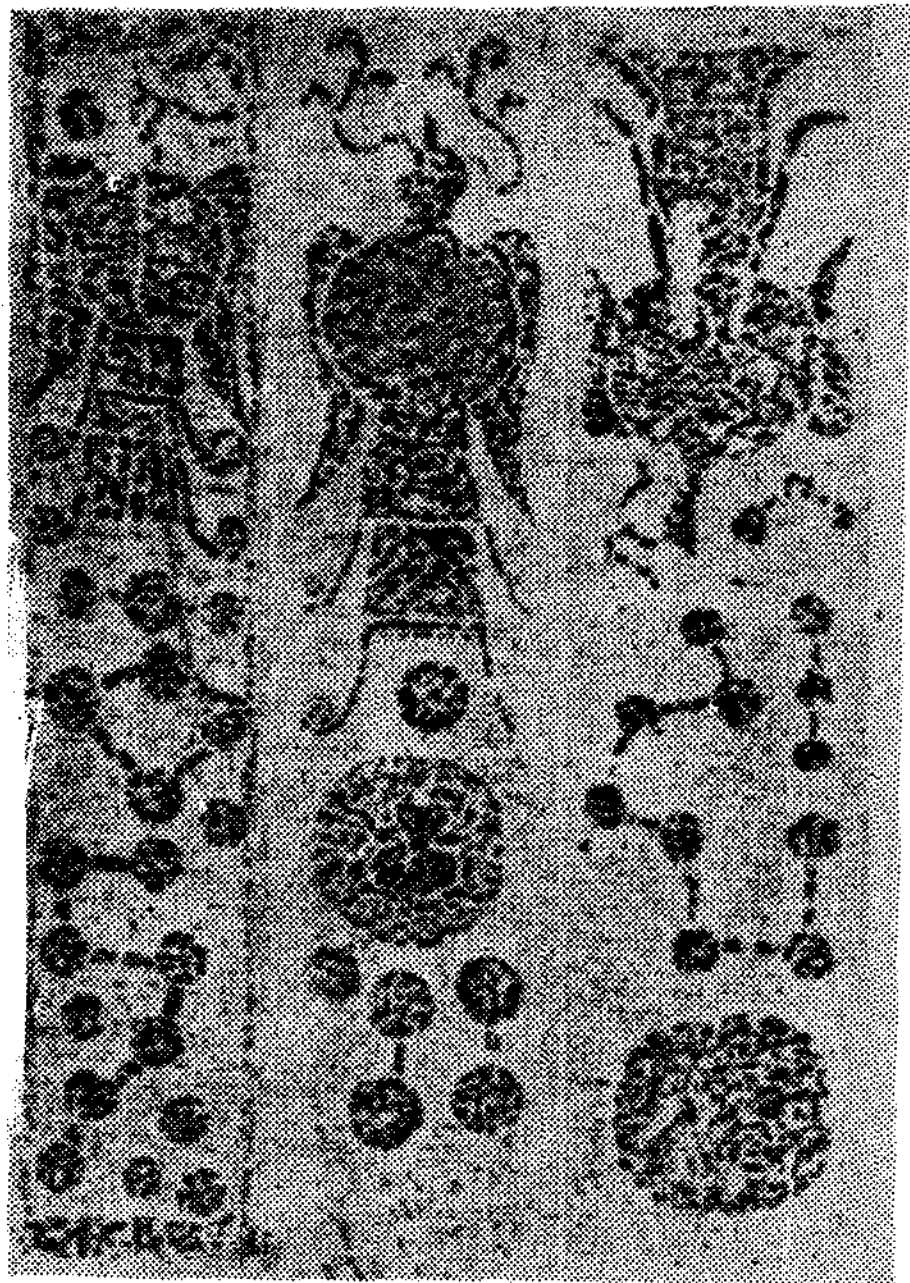
(2) 公上光貞, 末永雅雄 編, 高松塚古墳と飛鳥, 中央公論社, 1972(昭和 47), pp. 80~87.

二十八宿名	距星(西洋名)	(한국명)		西洋名	(한국명)		西洋名	(한국명)
角	α Virginis	處女座	虛	β Aquarii	水瓶座	觜	λ Orionis	오리온座
亢	κ Virginis	處女座	危	α Aquarii	水瓶座	參	δ Orionis	오리온座
氏	α Librae	天秤座	室	α Pegasi	페가수스座	井	μ Geminorum	쌍둥이座
房	π Scorpii	金蠍座	壁	γ Pegasi	페가수스座	鬼	θ Cancri	蟹座
心	σ Scorpii	金蠍座		η Andromedae	안드로메다座	柳	δ Hydrae	海蛇座
尾	μ Scorpii	金蠍座	奎	β Arietis	壯羊座	星	α Hydrae	海蛇座
箕	γ Sagittarii	射手座	婁	β Arietis	壯羊座	張	ν Hydrae	海蛇座
斗	φ Sagittarii	射手座	胃	β Arietis	壯羊座	翼	α Crateris	컵座
牛	β Capricorni	山羊座	昂	η Tauri	황소座	軫	γ Corvi	까마귀座
女	ϵ Aquarii	水瓶座	畢	ϵ Tauri	황소座			

「太子」星이고, 3번째 즉 「帝」의 右側이 皇太子 이외의 皇子를 가리키는 「庶子」라고 하는 별이고, 그 右側의 星이 「后」이다. 그리고 그 오른쪽이 北極星이 된다.

또한 四輔는 輔佐의 大臣을 뜻한다.⁽³⁾ 결국 天에 해당하는 天帝一家의 常住를 나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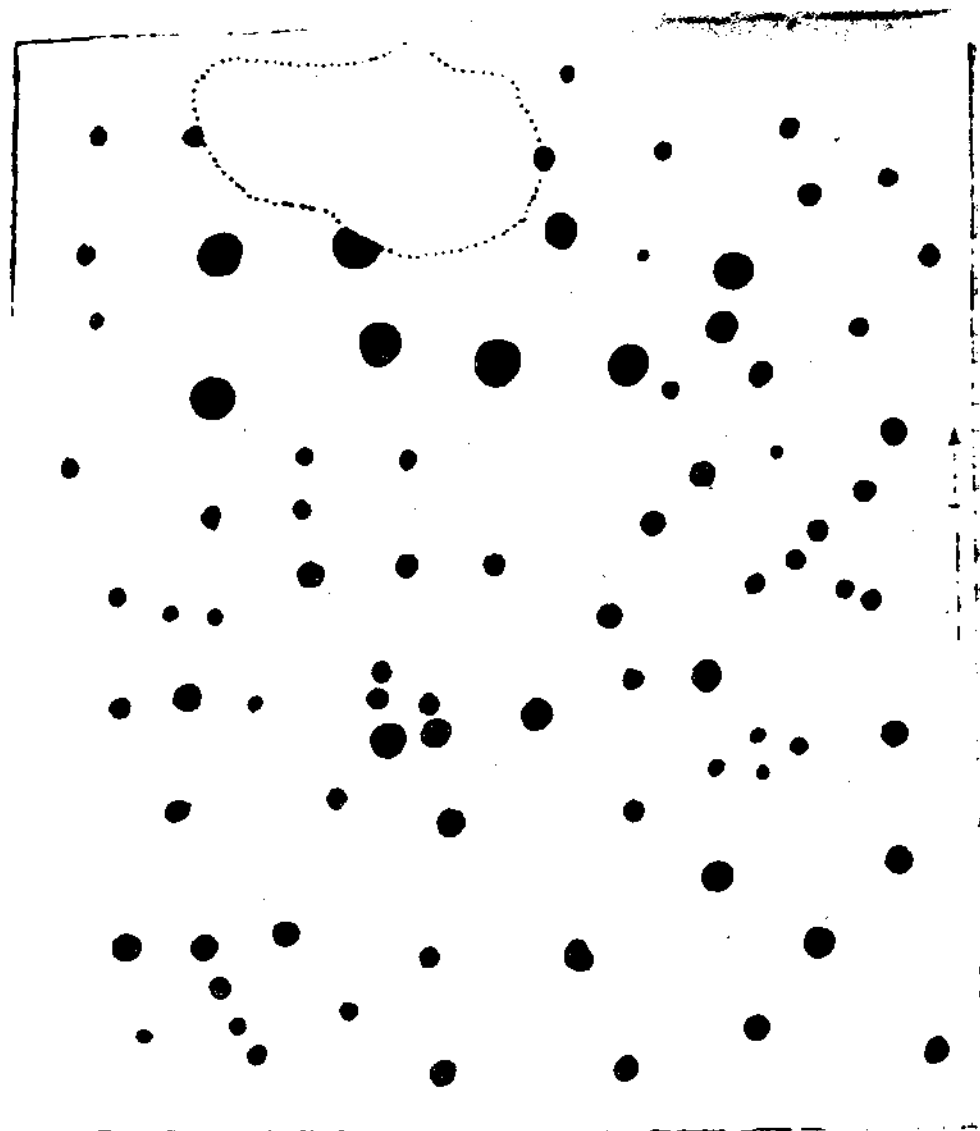
이것은 中央에 움직이지 않는 天極 附近의 北極五星과 地上에 投影된 全國土를 의미하는 二十八宿을 포함하여 보면 皇帝가 “治天下”를 의미하는 中國 古來의 意想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圖 3] 漢 畫像石의 星宿

이러한 의미있는 星宿는 畫像石이나 古墳·壁畫 등에 잘 채택되어지는데 이는 이들 그림이 死後의 第二의 生活環境을 그리기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中國의 경우는 漢의 畫像石에 묘사되어 있는 星宿의 例를 들어 볼 수 있으며 [圖 3], 이러한 思想이 담긴 中國 古來의 星宿는 朝鮮을 거쳐 日本에 전파되었다고 본다. 즉 高句麗 古墳壁畫 중에 眞坡里 第四號墳(5세기末~6세기初)의 星座圖 [圖 4], 혹은 星塚(5세기 初~中), 舞踊塚(6세기) 主室 天井壁畫에 나타난 星辰圖, 角抵塚(6세기경)의 主室 天井壁畫 등에 나타난 星辰圖 등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⁴⁾



[圖 4] 眞坡里 第四號墳 星座圖

(3) 末永雅雄 編, 高松塚壁畫古墳, 創元社, 昭和 47, pp.133~144.

(4) 韓國美術全集 4, 壁畫, 同和出版公社, 1974, pp.140~144.

한편 이러한 中國 古來의 二十八宿는 아마 朝鮮을 거쳐 日本에 건너온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日本書紀」에 의하면 欽明天皇 14年(553) 6월에 內臣을 朝鮮에 보내어 醫, 易, 曆의 博士를 교대로 來朝시키도록 勅하였다. 그 이듬해 易博士 王道良, 다음 다음 해에는 曆博士 王保存 등이 來朝했다. 이것이 中國의 曆本이 朝鮮을 거쳐서 日本에 渡來한 최초다.

그후 50年쯤 지나 推古天皇 10年(602) 冬 10月에는 百濟僧 觀勒이 曆本 및 天文, 地理書 및 遁甲方術書를 가져왔다. 그래서 書生 3,4人을 골라서 이를 배우게 하고, 陽胡史의 祖玉陳이 曆法을 習得하여 大友 村主高惣이 天文遁甲을 배우고, 山背臣日竝立이 方術을 배우고 그 業을 일으켰다고 하니 公式으로 曆日을 使用한 것은 이 무렵이었다고 볼 수 있고 더구나 실제로 「政事要略」(日本 古來의 法制에 관한 것을 적은 책)에는 推古天皇 12年(604) 甲子の 해 초하루부터 처음으로 曆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의 日本 官府에서 채용한 것 뿐이고, 一般 庶民의 사이에는 아직 시험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曆法 施行을 결정한 것은 持統天皇 4年

(690)이 된다.⁽⁵⁾

또한 韓半島와 관련이 깊다고 인정이 되는 高松塚 古墳의 天井石에 그려진 星宿圖는 曆法施行과 비슷한 약 7C말경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中央의 北極五星을 중심으로 二十八宿를 南中하는 順序로, 地를 의미하는 方形의 四方에 配列하여 美術的으로 表現한 것으로서 二十八宿가 전부 묘사된듯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圖 5].⁽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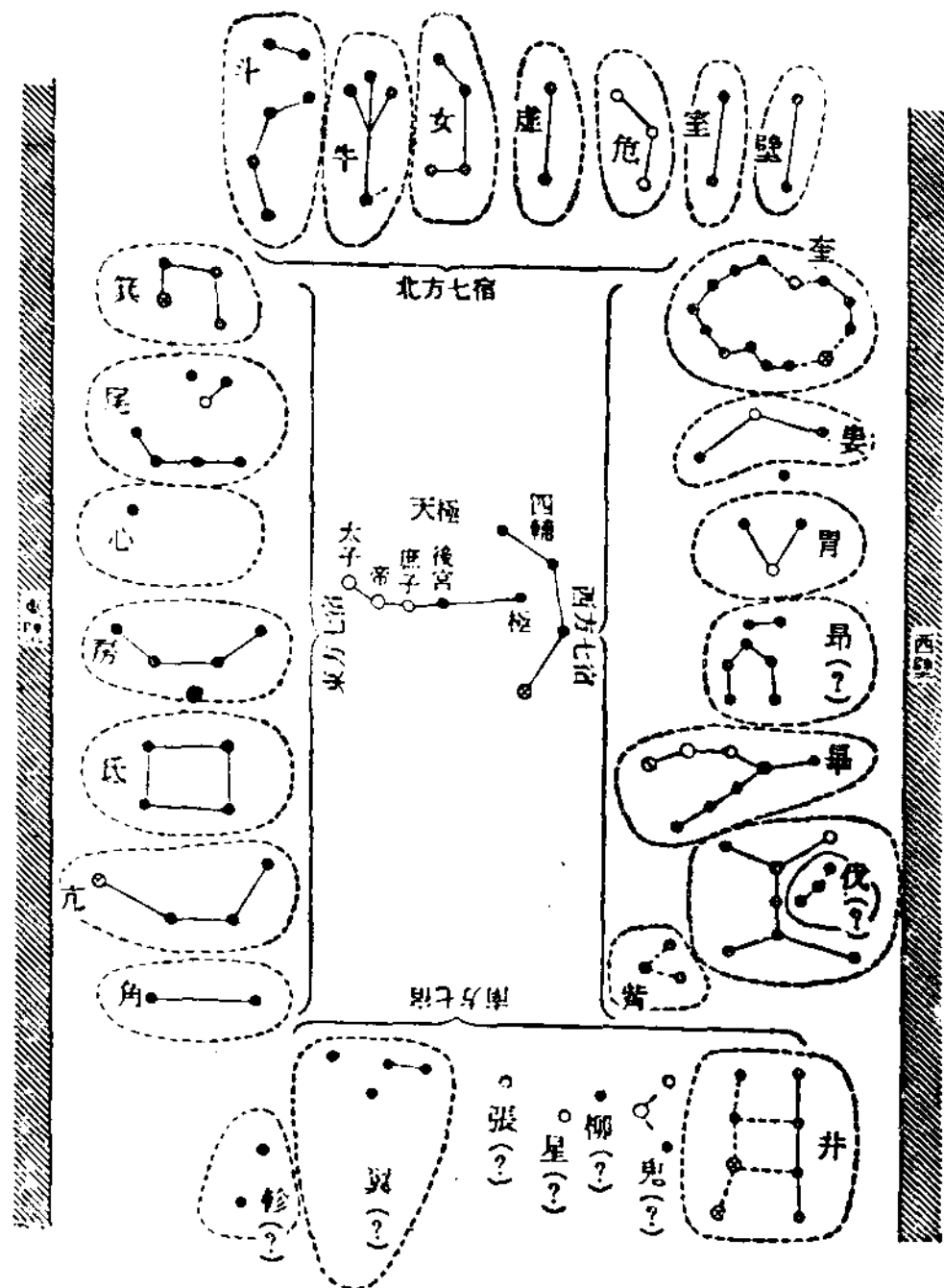
3) 儀仗旗로서의 二十八宿

二十八宿의 自然科學的인 面과 政治的인 面을 살펴 보았는데, 「大明集禮」에 기록된 二十八宿 儀仗旗와 昌德宮의 遺物 등과를 관련지어 時代에 따른 변천과 함축하고 있는 象徵 意味를 더욱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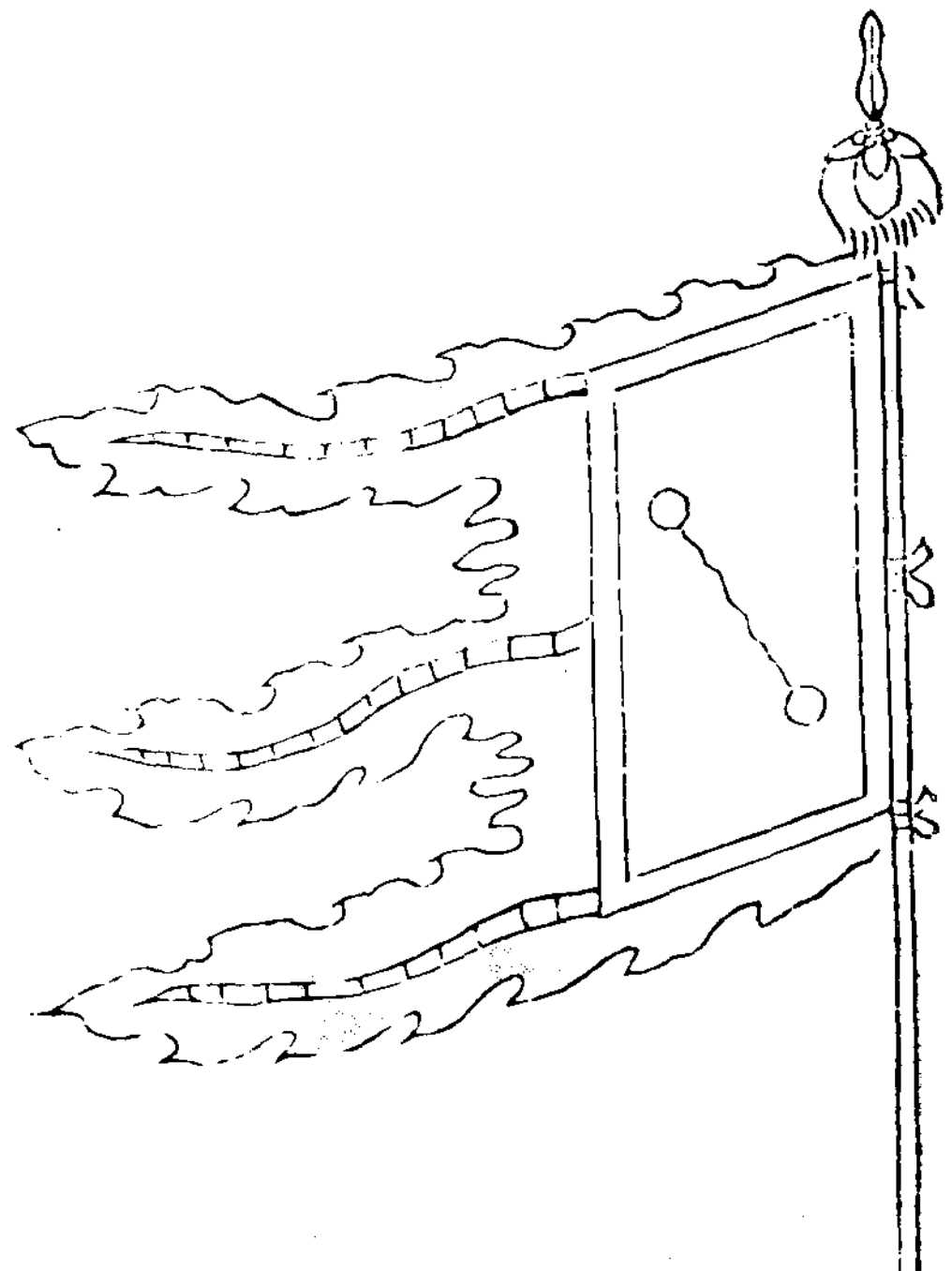
① 角宿旗

이는 天王帝의 天廷(뜰)을 뜻하며, 角二星은 造化萬物을 담당하고, 仁君의 威信을 펴는 것을 意味한다.

宋代의 角宿旗는 女子形 神人이며, 구름 가운데 연꽃을 들고 서 있으며, 元代는 角의 眞形인 蛟(도롱뇽)를 그리고, 明代는 角宿二를 塗金한다[圖 6].



[圖 5] 高松塚 星宿圖



[圖 6] 角宿旗(大明集禮)

(5) 井上光貞, 末永雅雄 編, 高松塚古墳と飛鳥, 中央公論社, 1972(昭和 47), pp. 80~87.
 (6) 末永雅雄 編, 高松塚壁畫古墳, 創元社, 昭和 47, p.142.

② 亢宿旗

亢은 疏廟로서 天子의 內朝를 의미한다. 宋代는 旗幟에 黑等子を 든 神人을 그렸으며, 元代는 亢의 眞形으로 龍을, 明代는 亢宿四를 도금한다.

③ 氐宿旗

氐는 天根이요, 王者의 宿宮(자는궁)이요, 后妃의 府(관사)이다. 宋代는 旗幟에 神人을 그렸으며 元代는 氐의 眞形인 貉(담비)를 그리고 明代는 氐宿四를 도금한다.

④ 房宿旗

房은 天駟이며, 明堂으로 天子가 政事를 펴는 宮이다. 宋代는 旗幟上에 仗劔들은 神人을 그렸으며, 元代는 房宿의 眞形인 兎(토끼)를 그리고, 明代에는 房宿六를 塗金했다.

⑤ 心宿旗

心은 明堂의 大星이니 天王 전후에 아들처럼 속하여 곧기를 탐내지 않는다. 또한 心三星은 天王의 바른 위치라고 하는 것이다.

宋代의 旗幟 제도는 神人을 그렸고, 元의 제도는 心宿의 眞形인 狐를 그렸으며, 明의 제도는 心宿三을 塗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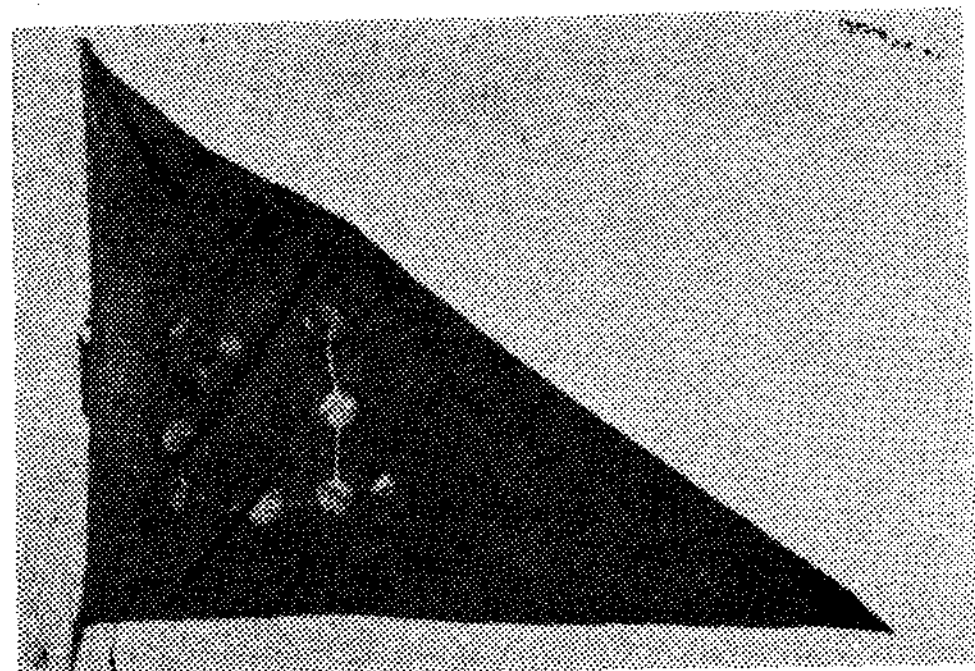
⑥ 尾宿旗

尾는 九子이니 君臣을 가리키며, 尾九星은 後宮의 장소요, 옆의 一星은 神宮의 옷벗는 內室을 뜻한다.

旗의 제도는 宋代에는 神人, 元代에는 尾의 眞形인 虎를 그렸고, 明代에는 星紋十을 塗金하였다[圖 7].

⑦ 箕宿旗

箕는 오만한 손님을 뜻하고, 또 旗 四星은 後宮, 後妃의 府(관사)요, 天津이요, 八風 담당이다.



[圖 7] 尾宿旗(昌德宮)

旗의 제도는 宋代는 불 속에서 백마를 타고 있는 神人을 그리고 元代는 眞形인 豹을 그리며 明代는 箕宿四를 塗金한다.

⑧ 斗宿旗

北宮은 玄武이고 南斗는 廟이다. 南斗六星은 丞相太宰의 位이며, 政事의 마땅함을 헤아려 어질고 훌륭한 이를 천거하고 작위를 제수한다.

旗幟의 제도로는 宋代는 神人, 元代는 眞形인 獬를 그리고, 明代는 斗宿六을 깃발 가운데 塗金한다.

⑨ 牛宿旗

牽牛는 犧牲을 의미하고, 牽牛六星은 天의 관문의 서까래이니 별이 밝고 크면 王道가 흥성한다고 하였다.

旗幟의 제도로서 宋代는 雲氣 중에 서 있는 神人을 그리고 元代는 眞形인 牛, 明代는 牛宿六을 깃발 가운데 塗金하였다.

⑩ 女宿旗

湏女四星은 天少의 府라, 湏은 賤妾의 호칭으로 婦職의 낮은 것이라, 주로 옷감 말라 만들고 嫁娶(혼인으로 여자를 얻음)하는 것을 말한다. 별이 밝으면 女子의 功이 일어난다.

旗幟 제도로 宋制는 蓮을 들고 구름 중에 서 있는 神人, 元制는 眞形인 龜을, 그리고 明制는 女宿四를 塗金하였다.

⑪ 虛宿旗

虛二宿는 冢宰의 官職이라, 주로 마을 廟堂의 祭祀, 기도의 일을 주관하니 별이 밝고 맑으면 天下가 안정된다.

宋의 旗上에는 神人, 元은 鼠를, 그리고 明은 虛宿二을 塗金한다.

⑫ 危宿旗

危는 屋(집)을 의미, 주로 天府, 天市, 架屋, 혹은 天市, 廟堂을 이른다.

宋의 旗上에는 神人을, 元은 危의 眞形인 燕을 그리고, 明은 星紋七을 塗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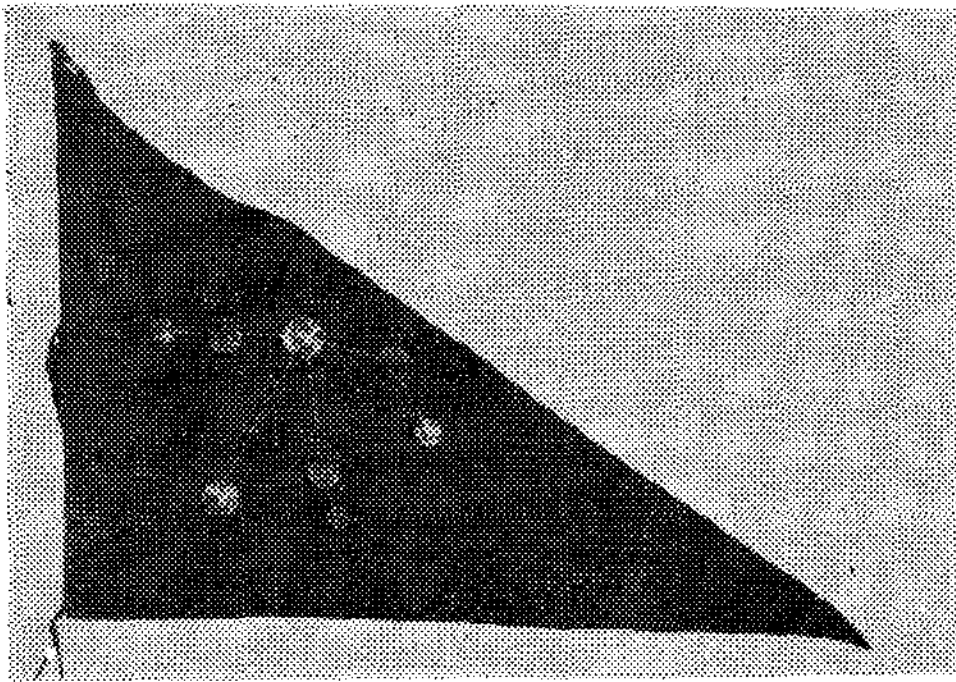
⑬ 室宿旗

營室二星은 天子의 官으로, 軍糧창고와 토목 공사를 맡는다.

宋의 旗는 배를 타고 있는 神人, 元은 猪를, 그리고 明은 星紋六을 塗金한다[圖 8].

⑭ 壁宿旗

東壁二星은 文章을 맡으니, 天下의 圖書를 비



〔圖 8〕 室宿旗(昌德宮)

장하는 창고라, 별이 밝으면 王이 흥하고 道術이 나라에 행해지고 君子가 많다. 宋代의 旗幟上에는 구름 중에 서 있는 女子形 神人을 그리고 元代에는 猿, 明代에는 壁宿二를 塗金한다.

⑮ 奎宿旗

奎六宿는 天의 무기 창고이니 주로 난쪽의 금지를 말한다. 宋代의 旗制度는 神人을, 元은 狼을 그리고 明은 奎宿十六을 塗金한다.

⑯ 婁宿旗

婁三星은 天獄이라, 희생물을 길러 郊祀에 공급하고 兵을 일으킨다.

宋代의 旗幟制度는 神人을 그리는 것이고 元은 狗를, 그리고 明은 婁宿三을 塗金한다.

⑰ 胃宿旗

胃三星은 天의 주방 창고이니 즉 오곡의 창고라 별이 밝은 즉 四時 화평, 天下가 평화롭다.

宋代의 깃발 위에는 神人을, 元의 깃발 위에는 雉를, 그리고 明에서는 胃宿三을 塗金한다.

⑱ 昂宿旗

昂七星은 하늘의耳目이라, 西方獄事를 말한다. 별이 밝고 크면 天下安和하고 訟事가 平하다.

宋代의 기치제도로는 神人을 그리고, 元은 雞를 그리며, 明은 昂宿七을 그린다.

⑲ 畢宿旗

畢八星은 변방의 兵士를 말고 수렵을 말한다. 별이 밝고 크면 먼 곳의 오랑캐가 조공하러 오고 天下가 平안하다.

宋代의 기치는 말타고 구름 속을 가는 神人을 그리고 元은 鳥를 그리며 明은 星紋九를 그린다.

⑳ 觜宿旗

이는 三軍의 행함을 보살핌이요 軍의 창고이

다. 별이 밝으면 軍의 저장이가득하고 장수가 득세한다.

宋代의 觜宿旗는 神人을 그리고, 元은 猴를 그리며, 明은 觜宿三을 塗金한다.

㉑ 參宿旗

參은 忠良하고 효성, 근면한 아들이니 별이 밝고 크면 臣이 忠하고 子가 孝하다.

宋代의 參宿旗는 神人을 그리고, 元은 猿을 그리며, 明은 星紋 14를 塗金한다.

㉒ 井宿旗

東井八星은 하늘의 南門으로 亭侯(낮은 열후)이다. 水을 고루는 일을 담당하니 法令이 고름을 얻는 바이며, 별이 밝으면 질서가 바르다.

宋代의 井宿旗는 구름 중에 앉아 있는 神人을, 元은 犴을 그리고, 明은 星紋九를 塗金한다.

㉓ 鬼宿旗

鬼五星은 하늘의 눈이요, 보는 것을 맡아 간사한 죄를 밝게 살피니 별이 明大하면 곡식이 무성하다.

宋代의 鬼宿旗는 女子形 神人을, 元은 羊을 그리며, 明은 鬼宿五를 塗金한다.

㉔ 柳宿旗

이는 雷雨를 맡고, 材木을 맡는다. 또한 朱雀의 嗥이니 하늘의 주방 담당관이요, 음식을 주관함은 맛을 어우러지게 함이다.

宋代의 旗에는 女子形의 神人을, 元代는 驪를 그리고, 明代는 柳宿八을 塗金했다.

㉕ 星宿旗

星七星은 后妃를 받드는 女子의 위치요, 또한 어진 선비이다. 그리고 朱鳥의 목이니 一名 天都라, 衣裳文繡를 담당한다. 별이 밝고 크면 나라가 융성한다.

宋代의 星宿旗는 구름 가운데 서 있는 神人을 그리고, 元은 馬를, 明은 星宿七을 塗金한다.

㉖ 張宿旗

이는 진기한 물건과 宗廟에 쓰이는 물건을 주관 天厨 음식과 賞주는 일을 맡는다. 별이 크고 밝으면 나라가 융성하고 강건하다.

宋代의 張宿旗는 구름 가운데 앉아 있는 神人을 그리며, 元은 鹿을 그리고, 明은 張宿六을 塗金한다.

㉗ 翼宿旗

翼은 天의 樂府이니 俳昌, 戲樂을 주관하고

또 夷의 먼데 길손을 주관한다. 별이 明大하면 禮樂이 흥하고 蠻夷使가 온다.

宋의 翼宿旗는 불 속에서 있는 女子形 神人을 그리고, 元에서는 蛇를 그리며, 明은 翼宿二十二를 塗金한다.

㉘ 軫宿旗

軫은 冢宰의 보필 신하라 탈 것을 주관하니 별이 明大하면 車騎가 쓰인다.

宋의 軫宿旗는 구름 가운데 서 있는 女子形 神人을 그리고, 明에서는 星紋을 塗金한다.⁽⁷⁾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大明集禮」에 의하면 皇帝의 儀仗에 二十八宿旗가 모두 사용되는데 이는 史記 天官書, 爾雅, 漢天官志, 晉書 天官志, 隋志 등에서 天象의 思想的인 意味를 풀이하어 주고 있는 바, 二十八宿가 地上의 全國土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宋代에 와서 神人의 형상을 빌어 旗幟의 형태를 갖추게 되며, 元代에 이르러서는 星宿의 眞形에 해당하는 動物의 紋樣을 그린 旗幟의 형태를 그려주고 四方位에 따라 바탕색을 달리한다. 또 明代의 旗幟制度는 星宿의 형태만을 旗幟上에 塗金하여 표현했다.

우리나라는 高句麗의 古墳壁畫에 星座圖가 나오고 있으므로 지배자의 天의 思想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圖 4). 또 日本의 高松塚 古墳의 星宿圖 역시 高句麗, 百濟, 新羅의 文化 영향을 받은 시기의 것이므로 이러한 것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파된 사실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상징 문양 대신 직접 星宿紋樣 자체가 旗幟에 사용된 것은 中國에서는 明에 이르러서이므로, 우리나라에서 星宿紋樣 자체가 쓰인 旗幟의 예를 문헌에서 찾기는 힘들다.

즉 成文化된 禮典의 시초인 朝鮮初의 國朝五禮儀는 明의 洪武禮制, 杜氏通典을 비롯한 禮에 관한 모든 서적과 우리나라 傳來의 俗禮를 기본으로 정해진 것으로⁽⁸⁾ 여기에 언급된 儀仗旗는

明과의 二等 체강의 원칙에 의해서였든지, 二十八宿 星紋을 使用한 기록이 없으며, 高宗이 皇帝의 位에 오를 때까지는 天象의 意味가 강하게 부각되는 星紋 旗幟를 제작하지 않은 것 같다.⁽⁹⁾

다만 北斗七星旗(招搖旗)는 正祖 2年(무술 1778)에 왕의 수레 앞에 奉持하도록 한 기록⁽¹⁰⁾과 임진왜란 전에도 사용했다는 軍旗로서의 北斗七星旗가 기록에 나와 있고, 창덕궁에는 遺物도 남아 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高宗 즉위시의 「大禮儀軌」⁽¹¹⁾에 나타난 旗幟의 종류가 극히 적어 번갈아 紅衣, 黃衣 입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白澤旗, 三角旗, 角端旗, 碧鳳旗, 朱雀旗의 5종류에 불과해 王朝時代의 大駕 鹵簿 儀仗 165柄에 사용된 儀仗旗 27종⁽¹²⁾에도 못 미쳐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창덕궁에 보관되어 있는 天象을 의미하는 儀仗旗 중에는 「大明集禮」에 의거한듯한 日旗, 月旗를 비롯하여 五星旗, 尾星旗, 室星旗, 鬼星旗 등의 日, 月, 星辰을 새긴 몇몇의 實物이 있으며⁽¹³⁾ 「朝鮮語辭典」에는⁽¹⁴⁾ 二十八宿 旗가 거의 수록되어 있음을 볼 때 구한말의 혼란한 정치적인 와중 속에서 만들어 놓은 旗幟마저 사용하지 못했던 듯싶다.

2. 靑龍, 白虎, 朱雀, 玄武旗(四神)

四神이란 것은 東·西·南·北 四方位를 표시하는 星宿名을 일러 말하며 四方의 神을 四靈獸로서 대응시킨 것이다.

四神思想의 根源이라고 할 수 있는 天圓四方의 思想은 이미 中國의 古代神話에서 전하여지고 있는데, 天圓은 밝으며 精氣를 吐하고 方은 幽하고 氣를 품는다 하여 地를 뜻하는 바 天圓의 바탕에 相應하는 곳을 四神相應의 地道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天의 二十八宿를 東·西·南·北의 方位에 상응시켜 본땀던 것인데 東方·七宿은 角, 亢, 氐, 房, 心, 尾, 箕의 七星이며

(7) 大明集禮, 卷四十三 儀仗.

(8) 國朝五禮儀, 景文社, 1979, p.2.

(9) 白英子, 朝鮮王朝 儀仗旗에 관한 研究, 韓國衣類學會誌, 第五卷 第一號, 1981, p.153.

(10) 만기요람, 군청편 2 旗幟.

(11) 大禮儀軌, 奎章閣, 光武 元年 九月.

(12) 鹵簿式, 奎章閣.

(13) 白英子, 旗幟, 朝鮮時代宮中服飾,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1, pp.172~281.

(14) 朝鮮語辭典, 亞細亞文化社,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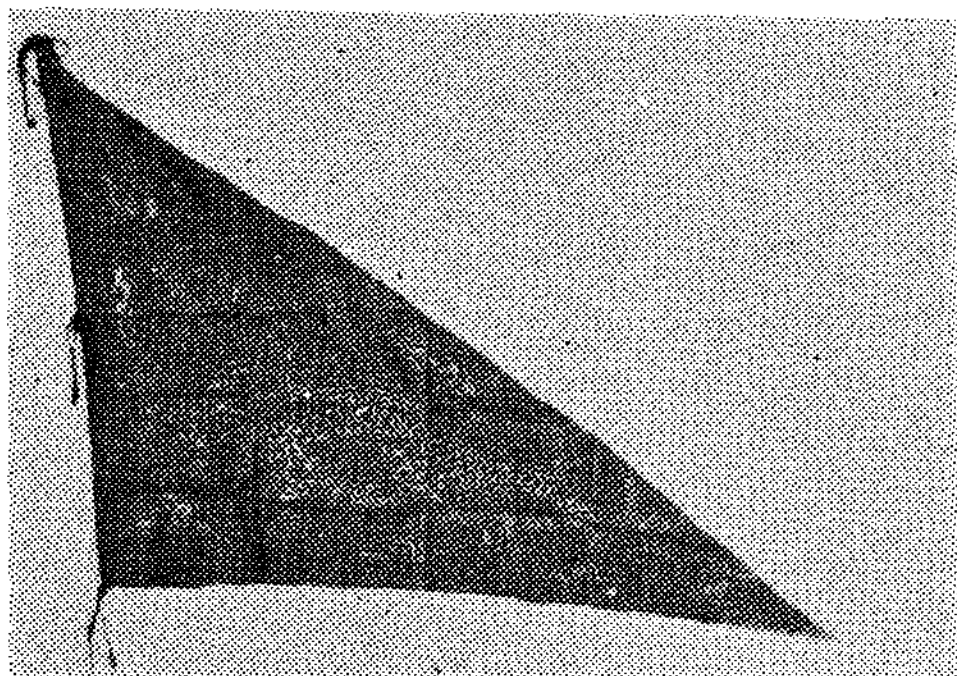
이 七宿은 太一의 前方에 있는 天一이라는 星座이며 이는 靑龍에 본떠져 있고, 心은 靑龍의 心臟에 본뜬 것이다.

다음은 南方 朱雀인데 이것은 井, 鬼, 柳, 星, 張, 翼, 軫의 七星이며, 가운데의 柳가 朱雀의 입에 해당하고 星이 頸, 張이 嗉囊, 그리고 翼이 翼에 각각 상징되어 있다. 계속해서 西方의 白虎인데 이의 星宿은 奎, 婁, 昴, 畢, 觜, 參 등의 七星이며 그 主要部는 參이며 紫鱗는 虎口의 先端인 것 같다. 그리고 北方의 玄武에 해당하는 星宿은 斗, 牛, 女, 虛, 危, 室, 壁의 七星이고, 軍事에 관한 별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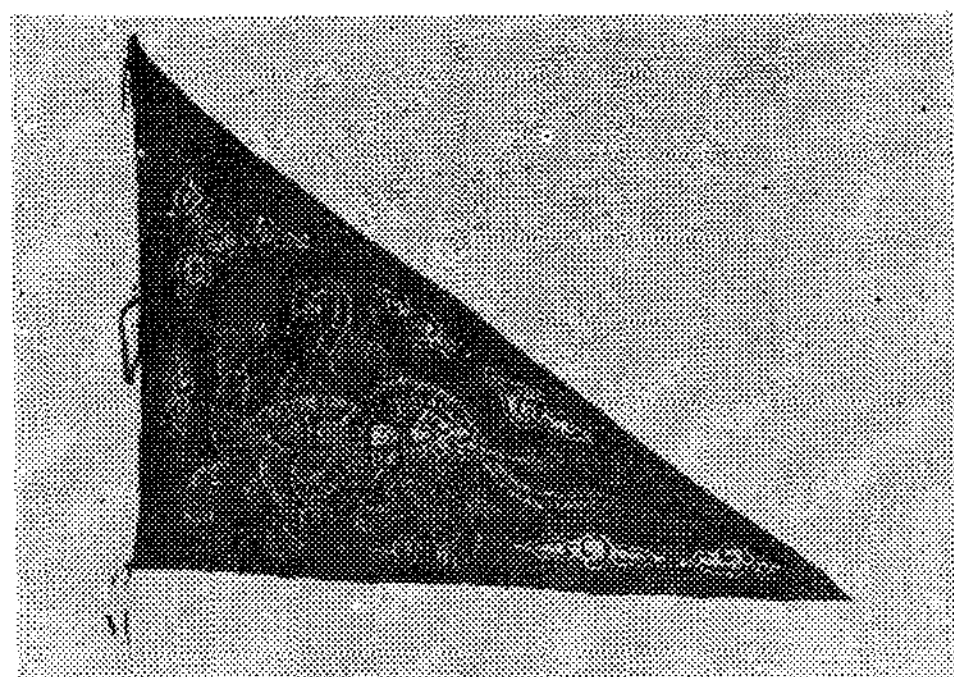
이와같이 天의 思想이 象徴적으로 具體化되어 四神思想을 成立시켰고 時代의 흐름을 따라 四神圖象으로 形象化되어 漢六朝를 거쳐 高句麗 古墳에 이어져 四神의 造形美가 最高의 藝術性을 發揚하게 된 것이다.⁽¹⁵⁾

이 圖象化된 四神은 天子의 旗라든가, 戰車에 쓰여지는 軍旗에 사용되었는데 唐代에 四旗가 鹵簿 중에 쓰였고 宋代의 경우 朱雀旗는 赤바탕, 赤화염각에 朱雀를 그리고, 玄武旗는 黑바탕 黑화염각에 거북과 뱀을 그리고, 靑龍旗는 靑바탕 赤화염각에 龍을 그리고, 白虎旗는 白바탕 赤화염각에 虎를 그렸다. 이러한 宋의 제도는 元, 明제에도 같이 쓰였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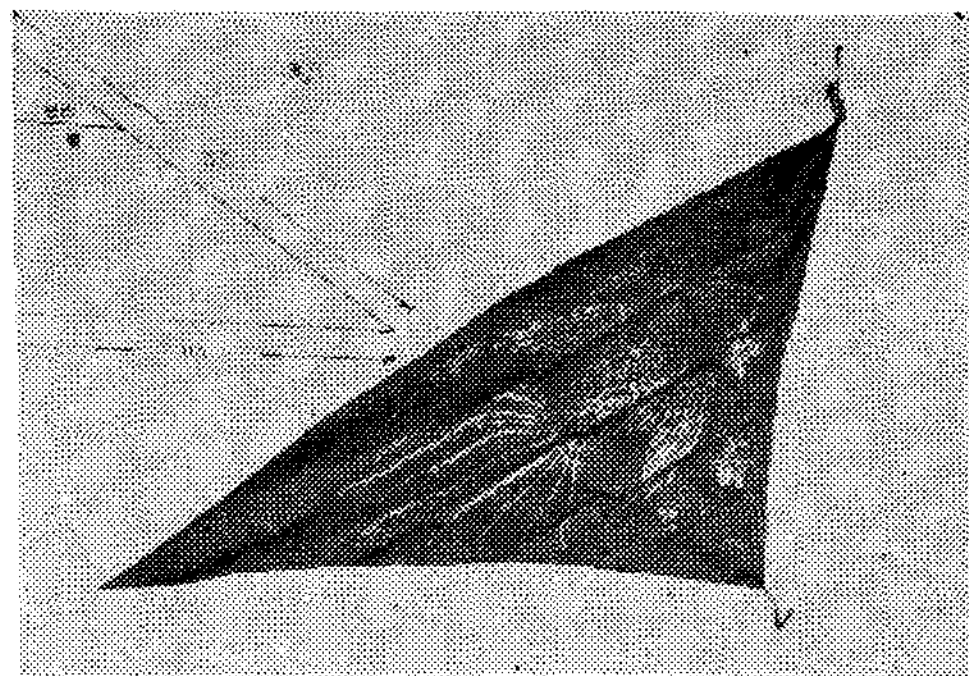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워낙 高句麗 古墳壁畫에 예술성을 발휘한 수많은 四神圖를 그려왔지만, 旗幟에 구체적으로 사용된 확실한 시기는 「世宗實錄」에 圖解되어 등장하고 있다.⁽¹⁷⁾ 그리고 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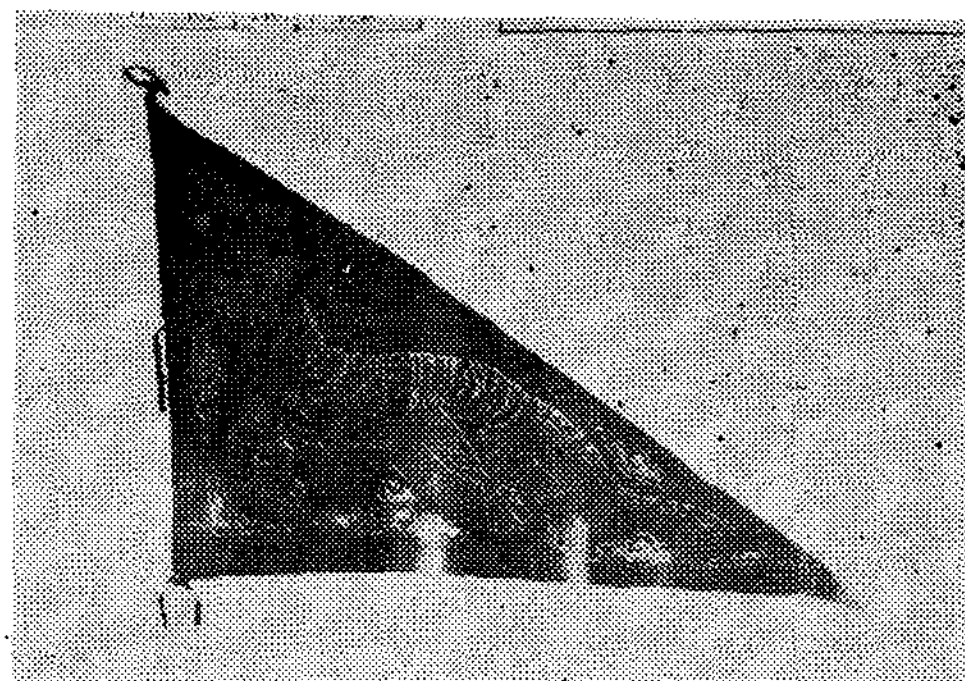
[圖 9] 靑龍旗(昌德宮)



[圖 10] 白虎旗(昌德宮)



[圖 11] 朱雀旗(昌德宮)



[圖 12] 玄武旗(昌德宮)

昌德宮에도 四神旗가 보존되어 있는데 中國의 제도와 별차이가 없으며, 그림으로 그린 4각기와 明代와 같이 금박으로 찍은 삼각기 2종류를 볼 수 있다.⁽¹⁸⁾

따라서 이 四神旗는 아주 오랫동안 변함 없이 天의 思想과 음양오행설, 풍수지리설 등의 내용을 지닌채 사용되어 온 旗幟들이라 하겠다[圖 9, 10, 11, 12].

(15) 渡邊素舟, 東洋文樣史, 富山房, 昭和 50, pp.197~201.

(16) 大明集禮 卷 四十三 儀仗

(17) 世宗實錄 第132卷 嘉禮序例 鹵簿.

(18) 白英子, 旗幟, 前揭書, pp.154~163.

3. 日旗, 月旗

周時代의 楊子의 太玄經에 가로되 해는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나니 日, 月을 旗에 등장시켜 天을 象徵함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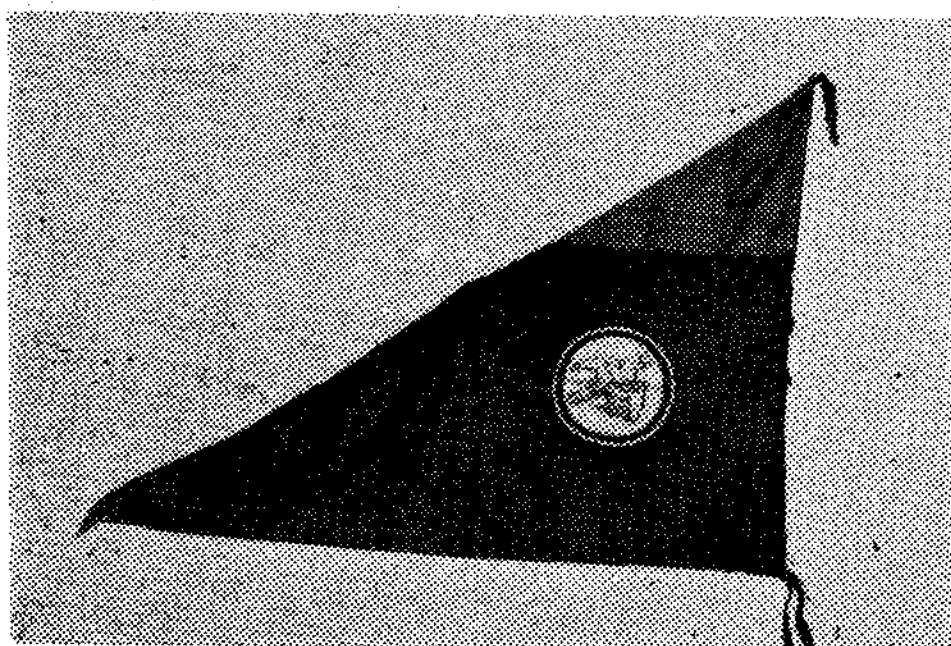
宋代에 와서 太祖가 日, 月旗를 각각 하나씩 설치하였는데 天聖鹵簿圖의 日旗는 赤色 바탕이고, 日 가운데 雞을 그렸고, 月旗는 靑色 바탕이며, 月 가운데 兎를 그렸다.

元의 制度는 日旗는, 靑色 바탕에 赤화염각, 日을 그리고, 月旗는 靑色 바탕에 赤화염각, 月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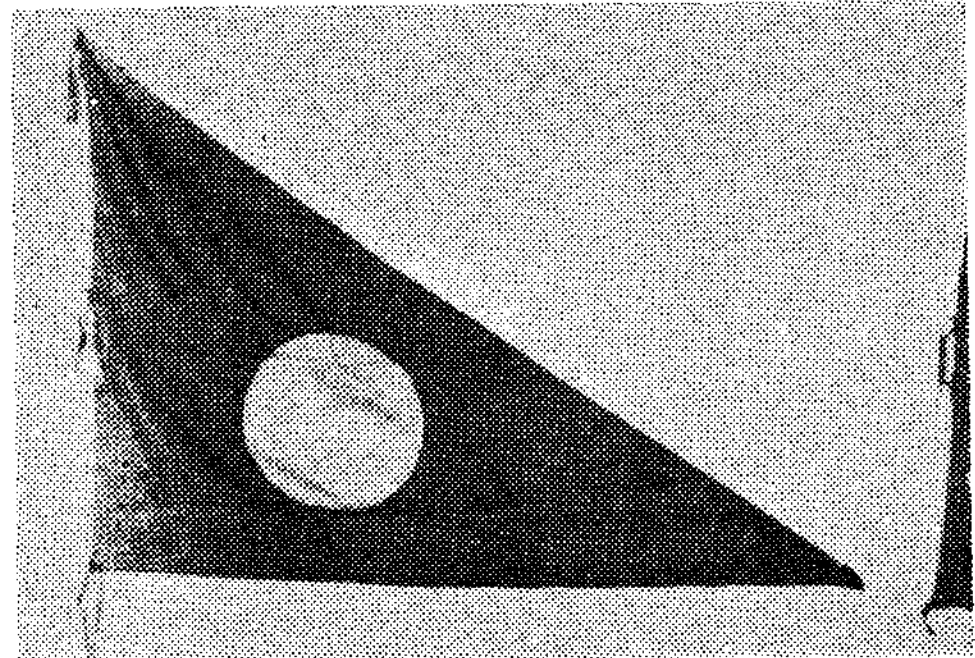
明의 제도는 日旗, 月旗 모두 靑바탕, 黃欄, 赤火焰間綵脚에 赤으로 日을 그리고 白으로 月을 그렸다.⁽¹⁹⁾

우리나라는 高句麗의 雙楹塚, 舞踊塚, 角抵塚 등, 古墳壁畫에 日象圖와 月象圖가 다수 그려져 있다. 이들의 紋樣은 日象圖의 경우 三足鳥(靑鳥, 혹은 赤鳥라고도 불리운다)가 圓內에 그려져 있고, 月象圖의 경우 두꺼비가 그려져 있거나 寫實的인 나무 밑에서 藥을 짓는 兎가 그려져 있어⁽²⁰⁾ 日, 月의 象徵思想이 이미 존재했음을 알겠다.

旗幟의 경우는 朝鮮王朝의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듯한데⁽²¹⁾ 이는 皇帝가 아닌 王이기 때문에 삼간 것으로 보이며 昌德宮의 遺物 중에는 日, 月旗가 각각 존재하고 있어 高宗의 황제 즉위 후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圖 13〕日旗(昌德宮)



〔圖 14〕月旗(昌德宮)

昌德宮에 있는 유물 日旗는 2가지로 검은 바탕에 상단은 보라인 것과, 전체 자주 바탕인 것이 있는데 日紋 속에 鳥紋을 금박하였고, 月旗는 靑바탕에 兎紋을 새겼다.⁽²²⁾

4. 北斗七星旗(招搖旗)

禮記 曲禮에 招搖가 위에 있어 그 노여움을 은밀히 다스리고 鄭氏註에 招搖星은 지휘를 주관하고, 招搖星을 旌旗 위에 그려 군센 군대의 위엄을 일으킨다 하니 天帝를 표상하는 것이다. 天子가 日·月, 七星旗를 세우니 대개 北斗七星을 그린 것이라고 하였다.

宋代에 역시 北斗旗를 썼고 元制는 黑바탕 赤화염각에 七星을 그린 北斗旗를 썼으며, 明制는 黑바탕, 黑火焰間綵脚에 塗金한 七星을 새겼다.⁽²³⁾

또한 高句麗 쌍영총 벽화에 북두칠성문이 그려져 있어 그 상징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인식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朝鮮의 旗幟로는 軍旗와 儀仗旗로 사용되었다. 軍旗일 경우 싸움터나 행진할 때 대장이 장수들을 부르고 지휘하던 旗이며 制度는 職品에 따라 다르고, 임진왜란 以前 五衛 때는 푸른 바탕에 흰빛으로 북두칠성을 그리고 火焰도 흰빛으로 하였다. 왜란 이후에는 각 營門의 方位에 따라 바탕의 빛을 달리하고 가장자리와 화염은 相生의 이치를 따라 정하였다. 赤, 靑, 黃, 白의 雲紋

(19) 大明集禮, 卷四十三 儀仗, 日旗, 月旗,

(20) 韓國美術全集 4, 壁畫

(21) 白英子, 朝鮮王朝 儀仗旗에 관한 研究, 韓國衣類學會誌, 第五卷 第一號, 1981, p.14.

(22) 白英子, 旗幟, 前掲書, p.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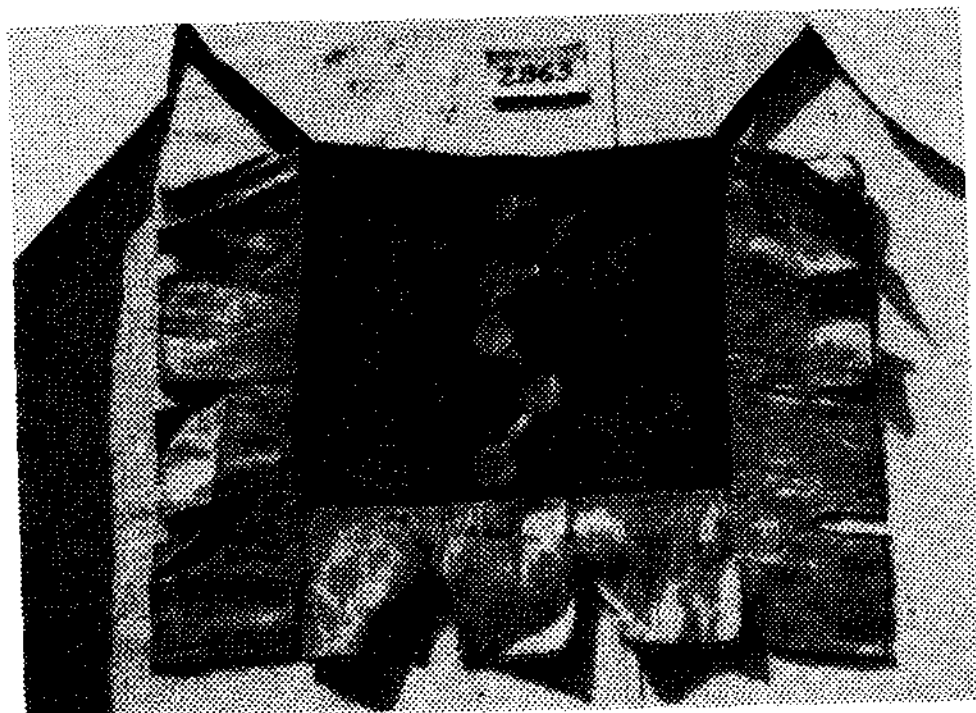
(23) 大明集禮, 禮卷四十三 儀仗.

이 있다.⁽²⁴⁾

儀仗旗의 경우는 正祖 2年 무술(1778)에 5位 舊制에 의하여 각영의 초요기를 왕의 수레 앞에 奉持하도록 하였다. 지휘할 일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호령을 받았다.⁽²⁵⁾ 여기서 이 旗가 사용된 확실한 연대는 임진왜란 전이라고 보겠는데 고려 초기의 「高麗圖經」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朝鮮王朝의 「世宗實錄」 國朝五禮儀 鹵簿式 등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아 확실한 연대를 알 수 없으나 고려 중기에서 조선 초기 사이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지 않았나 한다.

또한 中國의 경우와 달라 方位와 相生에 따라 바탕과 화염각의 色을 달리하였으므로 國俗禮化하여 사용된 듯하다[圖 15].

昌德宮의 遺物의 色은 黃 바탕 黃화염각, 赤 바탕, 靑 바탕, 靑 바탕 黑화염각, 黃바탕 白화염각 등의 4가지가 남아 있다.



[圖 15] 北斗七星旗(昌德宮)

5. 五星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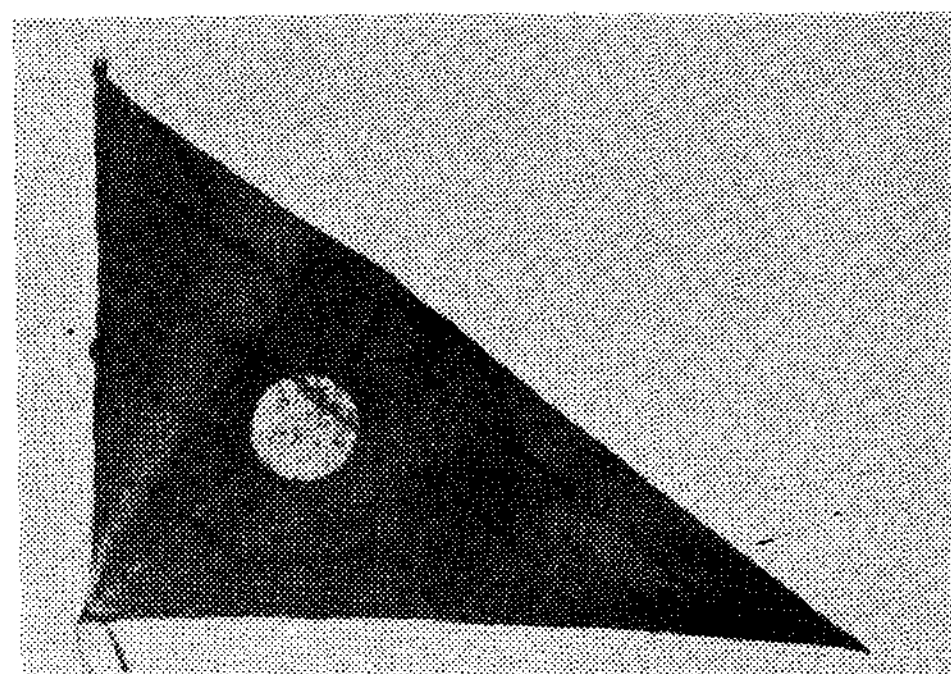
靈糶에 가로되 歲星은 木精, 熒惑은 火精, 鎮星은 土精, 太白은 金精, 辰星은 水精이다. 또 周나라 太常旗에 日, 月 五星을 그렸다.

宋의 制度는 五旗를 갖추었는데 모두 靑 바탕, 黃欄, 赤화염각에 각각 方色을 입은 神人을 그렸다. 元의 제도 역시 五旗인데 金星旗는 素바탕, 赤화염각의 기에 素衣, 朱裳 입은 神人을 그렸고, 水星旗는 黑바탕, 赤화염각의 旗에 皂衣 綠裳 입은 神人을 그렸다. 또 木星旗는 靑바탕에 赤화염각, 靑衣, 朱裳 입은 神人을 그렸으며,

火星旗는 赤바탕에 靑화염각, 朱衣, 綠裳 입은 神人을 그렸고, 土星旗는 黃色 바탕, 赤화염각, 黃衣, 綠裳 입은 神人을 그렸다.

明의 제도는 木星旗는 靑바탕, 火星旗는 赤바탕, 土星旗는 黃바탕, 金星旗는 白바탕, 水星旗는 黑바탕으로 하고 黃欄, 赤火焰門綵脚이며, 가운데에 星形 하나를 塗金했다.

창덕궁에는 五星旗 중 火星旗로 보이는 旗 하나가 남아 있다[圖 16].



[圖 16] 五星旗(火星旗)

II. 結 論

“治天下”하기 위한 권력자의 절대적인 염원은 위력 과시를 위한 儀仗物로서 나타나고, 그중 儀仗旗는 매우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儀仗旗만큼 그 時代, 그 民族의 思想과 象徴을 축약해서 나타내 주는 표지물은 드물다. 더구나 중국과 한국 등에서 사용된 旗幟의 紋樣과 色은 우주 전체를 포용하는 天象·地象으로 대별되어 사회적 배경과 사상을 투영해 주고 있으나,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天象에 관한 旗幟만을 발췌하여 내포되어 있는 意味를 考察하였다.

天의 二十八宿法은 曆을 만드는데 관계가 깊은만큼, 自然科學的인 대상으로서의 역할도 컸지만 궁극적으로는 강력한 政治的인 의미가 포함되어 天帝가 大宇宙를 支配하고 있는 뜻을 表現해 주고 있는 것이 西洋의 天文과는 다른 史料的인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天의 中心인 北極五星은 帝, 太子, 庶子, 后宮을 나타내 주어 天帝一家의 常住를 뜻

(24) 李弘植編, 國史大事典, 一中堂, 1978. p.1545.

(25) 만기요람, 군정편, 旗幟

하는 것이다. 또한 二十八宿 전체의 별자리가 각각 地上에 투영된 全國土를 의미하여, 地上의 政治支配의 組織 그것이 天에 반영되고, 天과 人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하고자 하는 思想的인 象徴의 근본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天文의 근본사상은 中國의 史書들에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漢代의 畫像石에 나타난 星宿圖, 高句麗 古墳壁書에 나타난 星座圖, 日本의 高松塚 壁書에 그려져 있는 二十八宿圖 등은 사상적 內容의 전파를 증명해 주는 좋은 예이다.

그리고 「大明集禮」에 나온 皇帝의 儀仗旗를 살펴보면 歷史적으로 변천해 온 象徴성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宋代에 와서 완벽한 旗幟의 制度를 완성하여 星宿의 意味에 따라 神人의 象상을 그려주었다. 또한 元代에 이르러는 星宿의 眞形인 동물과 星形을 표현해 주게 되며, 明代에 이르러서는 星形만을 塗金하였다. 朝鮮의 高宗의 皇帝 즉위 경우는 明代의 制度인 「大明集禮」를 참조하여 만들었다고 보며 昌德宮의 遺物에도 實例가 있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으나 動駕圖와 즉위시의 「大禮儀軌」등 문헌에 직접 나타나 있지 않

아 그 점이 매우 의문스러워 앞으로 좀더 研究해야 될 문제로 본다.

참 고 문 헌

- 王圻, 三才圖會(一)
 大明集禮, 卷四十三 儀仗
 井上光貞, 末永雅雄 編, 高松塚古墳と飛鳥, 中央公論社, 1972(昭和 47)
 末永雅雄 編, 高松塚壁書古墳, 創元社, 和昭 47.
 韓國美術全集 4, 壁畫, 同和出版公社, 1974.
 白英子, 「旗幟」, 朝鮮時代宮中服飾,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1.
 白英子, 「朝鮮王朝 儀仗旗에 관한 研究」, 韓國衣類學會誌, 第5卷 1號, 1981.
 國朝五禮儀, 景文社, 1979.
 만기요람, 군정편, 旗幟
 大禮儀軌, 奎章閣, 光武 元年 九月
 鹵簿式, 奎章閣.
 朝鮮語辭典, 亞細亞文化社, 1975.
 世宗實錄, 第132卷 嘉禮序例 鹵簿.
 李弘植, 國史大事典, 一中堂, 1978.
 渡邊素舟, 東洋文樣史, 富山房, 昭和 50年.